

2023-1 <해 (解) 기호와 사유> 기말 보고서
한국 사회 이면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바라보기
- <국가>와 <노자가 옳았다>를 중심으로

202021531 문화콘텐츠학과 김여진

<목차>

1. 서론
2. 언론 보도 속에 숨어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3.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는 이유
4.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초래하는 사회
5. 결론

1. 서론

노자와 플라톤의 공통점은 당시 시대 흐름에 저항하는 사상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은 불안정한 현실에 저항하여 영원한 절대 진리인 ‘이데아’ 사상을 주장했다. 반면에 노자는 나라와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절대적 명령이 존재했던 시대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의 사상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지금 필자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2023년도 6월 4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실렸다. 이처럼 계급과 양극화, 빈부 격차 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양지화되는 현상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한 부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필자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비롯된 여러 담론의 열풍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수성가했다고 알려진 사회탐구 일타 강사 이지영은 순자의 책을 예시를 들며 “능력이 있으면 천하가 나를 얻고자 하고 능력이 없으면 천하가 나를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영 강사의 서울대 입학 당시, 자신의 교수가 “너희는 상품이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품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순자와 서울대 교수의 말이 진리라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공에 따른 보상 또한 노력한 개인이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쉽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와 같은 생각이 양지화된 것에는 이러한 논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자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좋음의 좋음 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지 못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으로 빚대어 볼 때 “노력해서 성공하자”라는 태도를 좋다고 규정해 버린 순간 “노력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자들”에 대한 혐

오의 정서도 같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정서는 학생의 신분인 필자에게도 내면화되어 필자는 “놀거나 쉬는 것은 죄다”라는 경쟁 담론의 지배를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조문영(2022)은 ‘빈곤 과정’이라는 책에서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다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예측 불허의 삶을 온몸으로 경험한 부모로부터 때로 과도한 관심과 투자를 받으며, 또래와 살벌한 경쟁을 거듭 치르고 첫 관문인 중상위권 대학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와 필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해당 구절은 필자의 삶을 그대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생인 필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사회에서 수많은 경쟁에 목을 매야 했다. 필자는 늘 반에서 학원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공부하다 수없이 아팠고, ‘노력해서 성공하자’라는 문구를 방벽에 붙여놓고 공부해서 아주대학교라는 중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제 필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흐름에 대항하는 사상을 펼친 노자와 플라톤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온 여러 담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 대항하는 논리를 본 보고서에서 펼쳐보고자 한다.

2. 언론 보도 속에 숨어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맥콤과 쇼가 주장한 의제 설정 이론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어떤 이슈를 강조하거나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매스미디어는 수용자의 인지적 변화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사고를 구조함으로써 인지과정에 큰 효과를 끼친다. 특히 의제 설정 2단계 이론은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가 가진 특정 속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노자의 사상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서 본질을 언어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언어로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그 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이란 어떤 사안이나 본질을 언어로 규정해서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다. 언론에서 한 사안을 보도할 때 하나의 특성만 강조해서 보도한다면 수용자들은 그 사안에 대해 그 특성 말고는 다른 부분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 담론 중 하나인 자기 계발 담론은 성공한 사람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 올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양상은 언론들이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기사 제목에 ‘서울대생의 일침’, ‘서울대생의 주 69시간제 비판’, ‘서울대생의 갑론을박’ 등의 키워드를 넣었다는 점이다. 해당 방식을 택한 기사들은 기사 본문에 서울대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반응을 보도했다.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도 언론들이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을 때 주로 서울대의 ‘대나무 숲’ 등 서울대생의 의견에만 주목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로 이태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보도할 때 서울대생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사안의 특성상 이렇게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울대생’에만 주목한 보도 속에는 성공한 사람을 지나치게 선망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서울대생’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갓생’을 사는 살거나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긴 부지런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서울대생’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대생’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암묵적인 편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앞서 소개한 기사들은 젊은 층의 의견을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대생’에 기반해서 여론을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잘못된 악습이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거나 수능을 한번 잘 봤다고 해서 20대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서울대생에게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단순 수치상으로도 서울대생의 수가 젊은 층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서울대에 다닌다고 신뢰받을 만한 의견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보도는 권위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기사에서 주로 퍼오는 서울대의 ‘에브리타임’과 ‘대나무 숲’의 경우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외부인도 접근할 수 있어 진짜 서울대생이라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보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의제설정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보도는 암묵적으로 수용자에게 ‘서울대생의 말이면 믿을만하지’라는 생각을 야기한다. 따라서 비판 의식 없이 이런 보도를 받아들인다면 젊은 층의 여론이 중요한 사안을 볼 때 ‘서울대생의 의견’이라는 속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무의식중에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서울대생은 무조건 신뢰가 간다’는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비롯된 여러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대생이 옳다’고 규정하는 것은 ‘서울대생이 아니면 옳지 않다’라는 뜻이 되게 된다. 즉, 1%의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생을 따라가야 한다고 규정하면 할수록 진짜 젊은 층의 여론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 또한 서울대생만이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모든 가치를 독점하게 되고 서울대생이 아닌 사람은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할 기회에서 배제되고 낙오되게 된다.

3.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는 이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다. 2021년에 발생한 ‘의대생 실족사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평택항 아르바이트생 사고사 사건’은 젊은이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사안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도 크기는 매우 달랐다. 언론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빅카인즈에 따르면 ‘한강 의대생 실족사 사건’ 관련 보도는 769건이었다. 반면, ‘평택항 아르바이트생 사고사 사건’ 보도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량이 10배 넘게 차이가 난 이유는 피해자가 생전 의대생이었는지, 아니면 공장 알바를 하는 지방대생이었는지에 있다. ‘한강 의대생 실족사 사건’을 보도하던 언론들은 창창한 미래를 가진 성실한 대학생이 안타깝게 죽었다는 사연과 서사 위주로 보도하며 긴 시간 동안 애도 보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부모가 부

자라는 사실도 보도되어 많은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에 대중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의 적극적인 애도를 보였다. 그러나 군 제대 후 부친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죽은 지방대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족이 호소해도 언론과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사’와 성공을 숭상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일반적인 논리다. 이 논리에서 주목하는 ‘노력’의 목표는 성공에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매우 달콤하게 느껴진다. 성공한 사람은 노력해서 목표를 이룬 멋진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성공하지 못한 이에게는 노력을 안 하는 게으름의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성공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는 패배자로 인식하여 두 집단의 대접을 다르게 하게 만든다. 창창한 ‘부자 의대생’에게 닥친 죽음은 숭고한 의사를 잃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의 죽음에는 공감의 감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의 논리에 빠지게 되었을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에서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지하 동굴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동굴 밖은 이데아의 세계를 말한다. 지하 동굴 속 사람들은 그림자의 지식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가장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명예와 찬사를 준다.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노력 모두 동굴 속 세계의 것일 뿐이다. 서울대생은 동굴 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진리는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동굴 안 세상에서 말하는 입시, 취업, 명예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그저 무의미한 것들에 동굴 안 사람들끼리 서로 의미 부여하여 가치를 만들어 낸 것뿐이다.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과 학력 그리고 스펙은 모두 동굴 안 사람들이 의미 부여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일 뿐이지 그 자체로 개인에게 무조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는 무의미한 스펙과 경쟁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학습 심리학의 개념인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중립 자극이 어떤 반응을 자연히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된 이후 그 자극에 의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학습을 말한다. 여기서 무조건 자극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고 보이는 무조건 반응을 수반한다. 중립 자극은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중립 자극은 무조건 반응과 전혀 상관없는 자극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거나 칭찬받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다. 그러나 돈 그 자체로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돈으로 맛있는 걸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살 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돈만 봐도 ‘좋다’는 반응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좋다’는 ‘맛있는 것’과 ‘칭찬과 존경’이라는 무조건 자극의 무조건 반응이다. 또한 ‘돈’은 그저 종이나 숫자에 불과해서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중립 자극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립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함께 제시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중립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연합되어 무조건 자극이 없이도 무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자극이 된다. 여기서 무조건 자극이 없더라도 조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조건 반응은 조건 반응이라고 불린다. 즉, 의사 면허증, 서울대 학위, 돈 등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실 그 자체로 인간에게 필요하지도 좋지도 않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또한 밤을 새우거나 매일 연습을 가는 루틴도 모든 의미를 배제하고 행위 그 자체만 보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디어나 사회가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의사가 되어 부자가 되는 등 성공하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좋다”는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이 연합된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우리에게 ‘좋다’는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던 ‘의사 면허증, 서울대 학위, 돈’ 그 자체에 ‘좋다’는 조건 반응이 생긴다. 이후 ‘노력하면 모두 의사가 될 수도, 서울대에 갈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면 우리는 ‘개인이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신화도 똑같은 과정으로 인해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필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 사람들이 동굴 안의 그림자 지식의 논리에 지배되는 이유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진정한 교육을 의사가 되거나 서울대에 가는 것 같이 “시력을 넣어주듯 지식이 없는 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진정한 공부는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밝은 선, 즉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실재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의식중에 선망하게 되는 학력과 스펙은 진정한 공부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플라톤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향이 옳지 못한 나머지 보아야 할 곳을 보지 못하니 이를 연구해서 시정하는 기술”을 교육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생, 의사, 부자라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봐야 할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무조건 확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굴 안에서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집단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처세라고 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초래하는 사회

노자의 사상에 따르면 가치에 서열을 매기고 무한 경쟁국이 되어가는 사회는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서열을 매기는 계급과 양극화를 정당화하기 쉽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패를 모두 개인의 노력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는 성공하지 못한 개인에게는 패배감을 주고 성공한 소수에게만 우월감을 선사한다. 또한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얻은 성공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사회의 방향은 아니다. 플라톤은 ‘개인의 것’인 사유재산을 소

유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동 소유와 공동생활을 주장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게 만든다.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게으른 것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스펙과 학력을 채우려고 든다. 하지만 노자는 도는 채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비우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 노력은 내 삶의 중심이 남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를 따라갈수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린 시대에서 사는 필자는 본 보고서를 통해 손이 아닌 달을 보려고 노력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누군가 달을 보라고 달을 손으로 가리켰을 때 ‘노력하면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손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노자와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인 달을 보려고 시도했다. 언론이 젊은 층의 여론을 ‘서울대생’에만 국한하여 파악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 손을 보는 것이지만, 필자는 그 언론의 행위 속에 숨겨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플라톤과 노자의 사상은 기존에 필자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세계를 허물게 만들었다. 내가 기존에 맞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시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후에 깨달은 세상은 오히려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필자를 만인이 경쟁자인 각자도생 사회로 내몰아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학창 시절 필자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삶이 휘둘렸다.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자책감에 오랜 기간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다. 필자는 학창 시절 질병이 있어 오랜 시간 앓아서 공부하기 어려워 서 있는 상태로 공부해야 했다. 그 때문에 눈이 아닌 입으로 공부해야 했는데 집에 다른 형제가 있어 제약을 많이 받았다. 이렇듯 어떠한 결과에는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 구조나 개인의 상황 등 불가피한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무조건 ‘개인의 노력이면 다 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신화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간단하게 배제해버린다. 물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조건 나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덕에 한국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이면에 숨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수연(2013)의 ‘브라더 케빈’이라는 책에 “사실 이걸 아주 거대한 음모라고 할 수 있지.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걸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만 달렸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를 해도 그게 다 내 탓이라 여기게 되는 거고. 참 간편하잖아”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깨달은 구절이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동굴 밖에 나온 것 나온 사람은 진실의 빛을 보고는 잠시 눈이 멀었다. 그러나 점차 눈이 적응하면서 숨은 이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잡아먹으며 커진다. 필자 역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

의 무한 경쟁에 빠져서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더 ‘노력하면 된다’는 신화에 매달렸던 것 같다. 그러나 노자와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 이면을 보고 나니 불안했던 청소년기에 내 탓만 하던 과거를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플라톤과 노자 그리고 필자의 글이 무조건 옳고 신자유주의는 다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담긴 필자의 시각이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시대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아 보고서를 마친다.

<참고문헌>

- 김수연. (2013). *브라더 케빈*. n.p.: 문학동네.
- 김용옥. (2020). *노자가 옳았다*. n.p.: 통나무.
- 조문영. (2022). *빈곤 과정* (pp. 318). n.p.: 글항아리.
- 플라톤(천병희 옮김). (2020). *국가*. n.p.: 숲.
- 한균태, 홍원식, 이인희, 이종혁, 채영길, 이기형, 이두황, 이훈, 이정교, 박종민, 이상원, 정낙원, 홍지아, 임병국. (2006). *현대 사회와 미디어*. n.p.: 커뮤니케이션 북스.
- "가난이 노동시간 부족 때문이냐" 서울대생의 주69시간 비판. (2023).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1416011501673>.
- 김봉구. (2021.05.09). 한강 의대생 '100번' vs 평택항 알바생 '2번'...남다른 관심의 온도. 한경사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0924907>
- 산독기 독기의 표본 #이지영쌤 #shorts. (2022). <https://youtube.com/shorts/Hvo7uKgX3bk?feature=share>.
- "평등하지 않은 세상 꿈꾸는 당신에게"...대놓고 내세운 아파트 광고. (2023).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41504001#c2b>.
- Daniel M. Wegner. (2022). *심리학 입문(제5판)*. n.p.: 시그마프레스.
- "클럽 갔으면 '아웃팅' 각오한 것"...서울대생 글 갑론을박. (20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9734&code=61121111>.